

# 『治腫秘方附』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n *Chijongbibangbu*

오 용 섭 (Oh, Yong-Seob)\*\*

## ◁ 목 차 ▷

- |               |                   |
|---------------|-------------------|
| 1. 서 언        | 3.3 「의휘」 수록 「치종방」 |
| 2. 저자와 간행     | 4. 전본의 대비         |
| 2.1 저자        | 4.1 항목의 배열        |
| 2.2 간행        | 4.2 서명과 문자의 異同    |
| 3. 국내외 유사 전본  | 4.3 증보된 4항목       |
| 3.1 간본 「치종비방」 | 5. 결 언            |
| 3.2 사본 「치종방」  | <참고문헌>            |

## < 초 록 >

16세기 중기까지 활동한 치종 전문의인 임언국은 『치종비방』이라는 저술을 남겼다. 이 저술은 1559년(명종 14)에 간행되었다. 『치종비방부』는 『치종비방』에다 『침구경험방』 등에서 선별한 4항목과 한글을 보충하여 전라도 금구현에서 1707년경에 간행되었다. 서명의 “부”자는 『치종비방』에다 약간을 덧붙였다는 의미이다. 이 판본은 미국의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 중인데 현재까지 공개된 것으로는 유일하다. 현재 국내에는 이와 유사한 두 종류의 사본이 전한다. 이 사본들의 항목 배열과 내용을 보면 『치종비방부』의 전사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가치는 드물게 전하는 『치종비방부』의 사본이라는 점에 있다. 아울러 향후에는 『치종비방』, 『치종비방부』, 사본 『치종방』, 『의휘』 수록 『치종방』 등으로 구분하여 유사 전본간의 혼란을 피할 필요가 있다.

要語: 임언국, 『치종비방부』, 『치종비방』, 『치종방』, 금구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1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cheon.ac.kr)

접수일: 2012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13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Eon-Gook Yim, a boil specialist during the mid-16th century, wrote *Chijongbibang*. *Chijongbibangbu* was published in Geumgu-hyeon, Jeolla-do in 1707. The book was based on *Chijongbibang*, but it was supplemented with its Korean translation and the 4 items from *Chimgugoungheombang*. “Bu” of the title indicates that something has been added to *Chijongbibang*. The C. V. Starr East Asian Library of UC Berkeley possesses this printed book, and it seems to be the only copy that has been made public. Currently, in Korea, there are two similar manuscripts, both called *Chijongbang*. They were found to be the transferring manuscript of *Chijongbibangbu*, according to the contents and the item’s order. Therefore, the fact that they are similar manuscripts of the rare *Chijongbibangbu* makes them very valuable. Hereafter, in order to avoid confusion, it is recommended to classify the books into *Chijongbibang*, *Chijongbibangbu*, the manuscript *Chijongbang*, and the *Chijongbang* included in *Uihwi*.

Key words: Un-Gook Yim, *Chijongbibangbu*, *Chijongbibang*, *Chijongbang*, Geumgu

## 1. 서 언

16세기 중기까지 활동한 치종 전문의인 任彦國은 「治腫秘方」이라는 종기치료서를 남겼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첫 외과 전문의서로서 우수한 절개수술법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 그의 치종학은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관혈적 외과술로서, 중국이나 일본의 침술, 서구 외과술과도 그 전통을 달리하는 것이다.<sup>1)</sup> 처음 간행된 1559년(명종 14) 간본은 일본에 전하고 있을 뿐 국내에는 아직까지 공개된 것은 없다.

미국의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sup>2)</sup>에는 「치종비방」에다 4항목을 덧붙이고, 한글을 병기하여 전라도 금구에서 간행한 「治腫秘方附」가 전한다.<sup>3)</sup> 필자는 서명에 “부”가 첨가되어 있는 등 특이한데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책이어서 서지학적 식견으로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sup>4)</sup>

마침 국내의 한의학계에서도 다양한 한의서에 대한 연구가 연이어 진행되었고, 「치종비방부」도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결과<sup>5)</sup>는 “향후 국역 및 연구에 적지

1) 신좌섭, 기창덕, 황상익,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2),” 『醫史學』 제7권 제1호(1998), 94.

이 논문의 “4.腫의 분류와 치종학의 포괄영역”에서 「치종비방」의 내용과 임언국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2) The C. V. Starr East Asian Library of UC Berkeley.

3) 1960-1970년대에 배집, 개장되었음.

治腫秘方附 / 任彦國(16世紀)撰. - 木板本. - 金溝: [金溝縣], [肅宗 32(1707)].

不分卷1冊(24張): 四周雙邊, 半郭 18.3×13.9 cm, 有界, 10行17字, 內向混葉花紋魚尾; 29.0×19.7 cm

序題: 治腫方

版心題, 卷尾題: 治腫方附

序: 嘉靖三十八年己未(明宗14,1559)正月下滯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安瑋(1491-1563)序

刊記: 丁亥八月 日金溝縣刊

RARE 7945.2106

4) 미주중앙일보. 2006년 1월 12일. 한국고서시리즈: 치종비방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0722](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0722))

오용섭, 「돌려받지 못한 책들」 (서울: 경인, 2008), 204-219.

5) 박상영 외, “버클리대 아사미문고본 治腫方に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제23권 2호

않은 일조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국내의 후대 필사본인 『治腫方』과 동일하게 인식하여 『치종비방부』를 “아시미문고본 『치종방』”이라고 하는 등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더욱이 『치종비방부』가 “국내의 후대 필사본의 모태가 되었다.”며 전본의 계통성을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종방』이라는 서명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존의 한의학계의 연구에다 서지학적인 연구가 첨가되어야 『치종비방부』의 가치와 위상이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치종비방부』의 자체 분석과 함께 국내외 유사 전본들과의 대비를 통해 합당한 서명, 간행시기 그리고 전본의 계통성 등을 밝히고자 한다.

## 2. 저자와 간행

### 2.1 저자

이 책의 저자인 임언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sup>6)</sup> 서문을 지은 안위(1491-1563)에 따르면, 천성이 지극한 효자였던 저자가 침술을 배우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종기 때문이었다. 백약을 써도 무효하였는데 “다행히 영은사<sup>7)</sup>에서 한

---

(2010), 37-41.

6) 임언국과 『치종비방』에 대한 초기 연구로는 김두종 박사의 『韓國醫學史』(서울: 탐구당, 1966)가 있다. 이 책 제5절의 <治腫廳의 設置와 治腫醫 任彦國의 治腫秘方 및 治腫指南>(271-273)에서 임언국의 치법에 대해 “종래의 고식적 침술에 의한 종양의 절개술에 그친 것이 아니고 종양수술에 관한 현대의 외과적 수법을 연상할 수 있는 관혈적 절개요법이 많이 응용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고 하였다.(272) 그러나 임언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부전한 탓인지 안위의 서문을 국역해 놓았다.(314)

7) 『한국사지총람:하』(대전: 문화재청, 2010)의 영은사지(515), “현재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卷34 全羅道 井邑縣 佛宇條, 梵宇攷, 井邑縣邑誌에 ‘내장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伽藍考』, 『輿地圖書』, 『湖南邑誌』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백제 무왕37년(636)에 영은조사가 창건하였고, 언젠가부터 영은사를 내장사라 불렀다고 한다.”

노인을 만나 침법을 전수받아 어머니 병을 치료”하게 된 것이 그 시발이었다. 그 뒤에는 병을 고치는데 항상 효험이 있었으며 치료도 증기에 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사람이 죽어 엄을 하려고 하는데 침을 놓자 잠시 뒤에 그 사람이 깨어났다.”고 하며, 조정에서는 이를 듣고 부르니 “몇 년 만에 완전히 살린 사람이 무려 만 여명”<sup>8)</sup>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는 침술뿐 아니라 약을 조제하는 등 독자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의원이었다. 곧 “임진년(1532)에 생긴 풍증은 6년간 차도가 없었으나 土卵膏를 사용한 후 완전히 나았고, 이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험해보니 효험이 있었다.”<sup>9)</sup>고 하였다. 또한 그는 토란고와 같은 독창적인 비방과 함께 말의 치종술을 사람에게도 적용하기도 하였다. 곧 그러한 치료광경을 보고 있던 어숙권에게 “태운 찌꼬리 살을 이용한 치료법은 말의 종기를 치료하는 방법인데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sup>10)</sup>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한때 9품직으로 근무하였지만 사직하고 향리에서 지내자 정사룡(1491-1570)이 다시 그를 6품관으로 임용하여 침술을 전습할 수 있도록 명종에게 건의하였다.<sup>11)</sup> 그런데 안위는 명종이 임언국을 “예빈시주부에 제수하였다.”<sup>12)</sup>고 하였고, 『치종비방부』의 권수제 하단에도 “禮賓主簿任彥國遺方”<sup>13)</sup>이라고 되어 있다. 예빈시주부란 외국사절을 대접하고 종실의 음식을 제공하는 예빈시의 종6품의 직위이므로 정사룡의 건의는 수용되었던 것이다.<sup>14)</sup> 정사룡이 글을 올린 시기는 명

8) 安瑋, 治腫秘方序, “幸於靈隱寺, 遇一老髡, 傳受針法, 以治母病…有一人死而將斂, 遂針之有頃復蘇…數歲, 全活者, 幾萬餘人矣.”

9) 『治腫秘方』, 土卵, “壬辰年, 得風腫, 六年不得差, 得此而後, 永痊. 每施於人, 而必得其效也.”

10) 魚叔權, 『稗官雜記』, 卷5(『寒皐觀外史』, 卷5 序), “但余親見其治瘡, 既鍼之後, 必燒鶯肉, 以傳之. 詰其由, 則吾居鄉, 見治馬瘡者, 燒鶯肉傳之, 卽合吾意. 人馬皆同, 故試之有效. 夫取法於醫馬, 而用之於醫人, 未知其術果精邪.”

11) 鄭士龍, 『湖陰雜稿』, 卷8, [雜著], 請收敍任彥國傳習鍼術狀.

12) 安瑋, 治腫秘方序, “上特賜衣服, 超授禮賓寺主簿.”

13) 저자사항 중의 “遺方”을 “남겨놓은 처방”이라는 의미로 보지 않고, 내용 중에 임언국 자신을 “臣”이라고 한 점을 근거로 임금에게 상정하기 위하여 집필된 『치종비방』의 원자료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상영, 이선아, 권오민, 안상우, “치종비방 연구: ‘遺方’의 성격과 의과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한의학회연구논문집』, 제14권 1호(2008), 3.

확하지는 않으나 글의 말미에 趙晟(1492-1555)에게 군직을 주었던 사례<sup>15)</sup>를 언급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정사룡의 천거로 조성이 군직에 임용된 시기는 1551년(명종 6) 10월이었고,<sup>16)</sup> 이듬해에는 副司果에 임용되었다.<sup>17)</sup> 그렇다면 정사룡이 이 글을 올린 시기는 1551년 10월 이후가 된다.

본래 유학자<sup>18)</sup>인 임언국은 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의학의 이치를 연구한 儒醫이며,<sup>19)</sup> 그의 치중술은 스스로 묘법을 터득<sup>20)</sup>하였으므로 독창적이다.<sup>21)</sup> 『치중비방』에 수록된 것만 보아도 “13丁을 5丁으로 새롭게 분류한 점, 縷丁에 대해 처음 설명한 점, 토란고, 중기발생 원인에 대한 醫論 등 독창적인 내용”<sup>22)</sup>이 많다. 그의 독창적인 치중술에 대해 일찍이 조선의 의학사를 연구한 일인학자 미키 사카에(三木榮)는 “과학성이 풍부하여 치중법에 있어서는 같은 시대 명나라 薛己의 『外科樞要』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여 대륙 외과학의 수준을 아득히 능가한다.”<sup>23)</sup>고 하였다. 국내의 한의학계에서도 “독보적 경험에서 창출된

14) 임언국은 이전에 치중청에서 李耳와 더불어 백성들의 중기를 치료한 공으로 중7품인 진의 감직장이 되었고, 개성부 월령의 관직을 맡았다.

魚叔權, 『稗官雜記』卷5(『寒臯觀外史』卷5 수록), “任李二士之相繼在京也…以其有功, 輪付典醫監直長, 職及開城府月令. 五六年之後, 其技皆精, 後進慕效頗趨.”

15) 鄭士龍, 『湖陰雜稿』卷8, [雜著], 請收敘任彥國傳習鍼術狀, “近日趙晟, 亦給累資, 授軍職.”

16) 『明宗實錄』12卷, 6年(1551) 10월 2日, “丙辰 上御朝講, 知經筵事鄭士龍曰: …又有生員趙晟者, 自少有疾, 不求仕宦, 精於醫藥律呂算數之學. 若令爲之, 則固無不能矣. 醫藥之事, 尤無通曉之人, 趙晟又能精通於醫術. 若優其廩給, 而遴選醫司之聰敏可學者, 率以教之, 則豈無名醫之出乎?” 傳曰: “趙晟, 律呂醫藥算法, 無不通云. 付軍職, 俾專教誨, 鍾石磬剝缺者, 亦令晟校正修改, 以右參贊安珪, 兼掌檢舉 兼掌檢舉.”

17) 『明宗實錄』13卷, 7年(1552) 6월 22日, “趙晟爲副司果.”

18) 魚叔權, 『稗官雜記』卷5(『寒臯觀外史』卷5 수록), “任本儒者也.”

鄭士龍, 『湖陰雜稿』卷8, [雜著], 請收敘任彥國傳習鍼術狀, “但彥國素攻儒術.”

필자는 『돌려받지 못한 책들』(214)에서 임언국을 유학에 공격적인 사람으로 오해하였다.

19)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유의열전』(과주: 들녘, 2011).

20) 安瑋, 治腫秘方序, “傳受針法, 以治母病, 其後自得妙.”

21) 안상우, 박상영 등은 『국역치중지남·치중비방』(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26)에서 임언국의 치중술의 독창성에 대해 “임상경험을 통한 독창성은 관철적 절개술 뿐 아니라 조기진료의 중요성에 대한 간과에서도 드러난다.”고 하였다.

22) 서지연, “임언국의 치중의학 연구,”(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8), 17-18.

23) 三木 榮, 『補訂朝鮮醫學史及疾病史』(京都: 思文閣出版, 1991), 177, 388.

체계이며,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특징을 명료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sup>24)</sup>이라거나 “저자가 적용한 십자형 절개법은 조선의학사상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의과학에서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높은 수준의 과학적 창견이다.”<sup>25)</sup>며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의 치종술은 “許任의 『침구경험방』으로 이어지고, 이후에 완성된 의서에서도 그의 의론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19세기 후반까지도 유용한 가치”<sup>26)</sup>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임언국은 9품직에서 사직한 뒤 1551년 10월 이후에 정사릉의 추천으로 복귀하면서 6품직인 예빈시주부에 임명되었다.<sup>27)</sup> 예빈시주부로 임명된 뒤부터 사망 때까지는 줄곧 국가기관에 근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안위가 1559년 정월에 지은 서문에서 임언국이 “임금의 은혜가 두터울 때 불행하게도 죽어서 애석하다.”<sup>28)</sup>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언국은 국가기관에 복귀한 1551년 10월 이후 1559년 정월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난다.

## 2.2 간행

『치종비방부』의 권수제 하단에는 “예빈주부임언국유방”과 같이 이 책이 임언국의 유방임을 밝혀 놓았다. 이 유방은 1559년에 『치종비방』이라는 서명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치종비방부』의 내용을 보면 『치종비방』에다 疔腫, 治腫奇捷,

24) 신좌섭, 기창덕, 황상익,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2),” 『醫史學』 제7권 제1호(1998), 76-77.

25) 『조선고전해제』 (평양: 사회과학원, 1965), 514-515.

26) 서지연, 김남일, “任彦國의 의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권 2호(2007), 40.

27) 서지연은 임언국이 “1550-1554년 무렵에 본격적으로 등용되어 후진을 교육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치종청에서 최소 5-6년을 활동”한 것으로 보았다. 안상우, 박성영 등도 이를 따라 『국역치종지남·치종비방』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20)에서 “임언국이 본격적으로 등용되어 치종청에서 의술을 맡껏 펼친 것은 1550-1554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사릉이 임언국을 추천하면서 1551년(명종 6) 10월에 있었던 조성의 군직 임용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언국이 주로 활동한 시기는 1551년 10월 이후로 보아야 한다.

28) 安瑋, 治腫秘方序, “不幸而逝惜哉.”

騎竹馬穴法, 諸危惡症 등 4항목이 증보되고, 한글이 병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당시의 간행 주역들이 “부”를 서명에 첨가한 이유는 『치중비방』과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이었다.

증보된 4항목 중 疔腫은 『구급양방』과 『침구경험방』에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3항목은 『침구경험방』에서 증보한 것이다.<sup>29)</sup> 3항목의 인용사실은 치중기첩 아래의 주석에서 “이하는 『(침구)경험(방)』에서 증보한다.”<sup>30)</sup>고 밝혀 놓았다. 한글을 병기한 것은 한문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도 증상과 치료법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치중비방부』는 치료법의 대중적인 보급과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한글을 병기하였다는 점에서도 간행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발문은 없고, 권미에는 “丁亥八月 日金溝縣刊”과 같이 “정해년 8월에 (전라도) 금구현에서 간행”하였다는 간기가 있을 뿐이다. 간년인 정해년이 언제인지를 살핀다. 먼저 『침구경험방』에서 증보하였으므로 『침구경험방』이 처음 간행된 1644년(인조 22) 이후의 정해년이다. 물론 병기된 한글에서 16세기 말기까지 국어와 한자음 표기에 쓰인 ‘△’이 전혀 없으므로 17세기 이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1759년 2월에 완성된 『완영책판목록』에는 금구에 『治腫方』이 있고,<sup>31)</sup> 1780년경에 필사된 『古册板有處攷』의 전라도 금구현에도 역시 『治腫方』이 있다.<sup>32)</sup> 두 종류의 책판목록에는 『치중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치중방』은 인쇄에 필요한 종이와 목판의 숫자로 보아 『치중비방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곧 『고책판유처고』에는 목판의 수가 12장 반으로 되어 있다. 버클리대학 소장

29) 박상영 등은 『치중비방부』에 덧붙인 내용이 『침구경험방』 등에서 채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치중비방부』는 “『치중비방』 뒤에 『침구경험방』 중 치중과 관련된 부분을 덧붙여 성책한 서적”이라고 하였다.

박상영 외, “버클리대 아사미문고본 治腫方에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제23권 2호(2010), 38.

30) 治腫奇捷, “以下增補經驗.”

31) 『完營册板目錄』, 金溝(『한국의 책판목록:상』 (서울: 보경, 1995), 554), “治腫方, 白紙十三丈.”

32) 『古册板有處攷』, 全羅道 金溝郡(『한국의 책판목록:하』 (서울: 보경, 1995), 771), 全羅道 金溝縣, “册板…治腫方, 板子十二立半內, 三立朽傷, 在九立半.”

의 「치종비방부」의 전체 장수는 25장이다. 목판은 양면에 판각되었을 것이므로 책판목록의 12장 반이라는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인쇄에 필요한 종이의 수에 대해 「완영책판목록」에는 백지 13장이라고 하였다. 혹 목판의 숫자를 종이의 숫자로 적기도 하는데 「완영책판목록」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고책판유처고」 등의 책판목록에 금구현에 소장되어 있던 「치종방」은 「치종비방부」임에 틀림없는 것이다.<sup>33)</sup> 그러므로 「치종비방부」는 「완영책판목록」이 완성된 1759년 이전에 간행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치종비방부」의 간년 “정해”는 「침구경험방」이 간행된 1644년 이후 1759년 이전까지의 정해년, 곧 1647년(인조 25)과 1707년(숙종 33)이 해당된다. 그런데 「치종비방부」와 1653년(효종 4)경에 간행된 「벽온신방」<sup>34)</sup>의 한글을 대비하면 「치종비방부」가 후대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정해년은 1707년으로 추정된다.

한편 침과 뜸을 포함하는 허임의 치료법인 「침구경험방」이 간행되자 「치종비방」에 대한 수요는 감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침구경험방」에서 약간을 증보하고 한글을 병기하여 간행한 것은 전 백성에게 보다 증보된 치종술을 보급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의 치종술은 “5丁, 背腫만을 다루고 있어서 다양한 癰疽질환 모두에 대처하기에는 부족”<sup>35)</sup>하였기 때문이다.

### 3. 국내의 유사 전본

「치종비방부」는 버클리대학 소장본을 제외하고는 아직 공개된 것은 없다. 그러나 「치종비방부」는 「치종비방」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고, 후대의 사본 「치종방」, 2종도 유사한 전본이므로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수록된 내용을 간략히 본다. 「치종비방」에서는 火疔, 石疔, 水疔, 麻疔, 縷疔 등 五疔에 대한 증세와

33) 1559년(명종 14)에 간행된 「치종비방」은 15장이다.

34) 1653년(효종 4)경에 간행된 규장각 소장본.

金信根 編, 『韓國韓醫學大系』 38 (서울: 韓國人文科學院, 1999), 179-213.

35) 서지연, “임언국의 치종의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8), 38.

치료법에 이어 背腫의 치료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화정에서는 치료법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별도로 鹽湯沈引法, 土卵, 千金漏蘆湯, 蟾灰, 鹽湯沐浴法 등의 항목을 두고 부가적인 설명을 해 놓았다. 배중에서는 십자형 절개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치중비방부』에서는 여기에다 4항목이 덧붙여져 있고,<sup>36)</sup> 2종의 사본 『치중방』은 『치중비방부』의 한문 부분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치중비방』, 『치중비방부』, 사본 『치중방』 등을 유사 전본으로 보아 먼저 그 개략을 살핀다.

### 3.1 간본 『치중비방』

『치중비방』은 1559년 정월에 안위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천수를 다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sup>37)</sup> 하기 위해 간행하였다. 안위는 간행하기 한 해전 8월부터 전라도관찰사로 재직 중이었다.<sup>38)</sup> 부임한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은 이듬해 정월의 정읍 순행 길에 임언국의 유방을 구하게 되자 바로 금산군수 李億祥에게 위촉하여 간행하였던 것이다.<sup>39)</sup>

간행의 주역인 안위는 한 쪽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으나<sup>40)</sup> 마음이 중후하고 일에는 신중한 인물이었다.<sup>41)</sup> 그의 동생 安珰은 의술과 약리에 매우 정밀하고 견문이 넓어 종종 말년에는 임금의 주치의로 활동<sup>42)</sup>하였으며, 이 책을

36) 신좌섭, 기창덕, 황상익, “조선시대 치중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중전문서의 내용분석(2)” (『醫史學』 제7권 제1호, 1998)은 『치중비방』의 초기연구에 해당하며, 간행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한의학연구원에서 간행한 『치중방 번역연구』 등이 있다.

37) 安瑋, 治腫秘方序, “庶使人人, 得免夭扎, 而同躋仁壽之域耳.”

38) 『明宗實錄』 24卷, 13年 8月 24日, “以元繼儉爲京畿觀察使, 安瑋爲全羅道觀察使.”

39) 安瑋, 治腫秘方序, “余於今春巡過井邑, 求得遺方, 及其所撰治腫法也. 人雖云, 亡此方一出, 世之學者, 亦可因方, 以求其妙, 獨恨諸病治方, 未盡載也. 遂囑錫山郡守, 李君億祥, 鈔諸梓, 以廣其傳.”

40) 『中宗實錄』 64卷, 23年 12月 3日, “臺諫啓前事. 諫院啓曰: “禮曹佐郎安瑋, 眇一目. 本曹, 掌朝廷禮貌之地. 且客人接待時, 所見埋沒. 請遞.”

41) 『明宗實錄』 16卷, 9年, 3月 2日, “清洪道觀察使安瑋拜辭, 傳曰: “近來凶荒, 民盡流離, 予甚憫焉. 救荒諸事, 另加措置.” [瑋爲人持心重厚, 臨事謹恪, 長於吏治. 嘗牧三州, 皆有聲績.]

간행할 당시 정승<sup>43)</sup>이었다. 형제를 둘러싼 이러한 배경이 이 책을 간행하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안위는 「치중비방」을 간행하면서 「구급양방」도 “사사로서 감추지 않고 「치중비방」에 덧붙임으로써 사람들과 공유하고자<sup>44)</sup> 함께 간행하였다. 그 이유는 “중기를 치료하기 위한 村家의 실용의서로서 가치<sup>45)</sup>가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치중비방」과 「구급양방」 모두 반엽 9행 16자이다. 안위의 서문은 2장, 「치중비방」의 본문은 8장, 「구급양방」<sup>46)</sup>의 본문은 4장이다. 여기에는 권미에 안위의 발문 1장이 있으므로 모두 15장이다. 이 목판은 간행된 이후 1585년까지는 간행지인 금산에서 보존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sup>47)</sup>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이 목판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때 망실된 것이 아닌 같다. 이 판본은 일본의 구나이초쇼료부(宮內廳書陵部) 등에 전한다.<sup>48)</sup> 마이크로 필름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sup>49)</sup> 영인본도 간행되었다.<sup>50)</sup> 근자에 한의학계에서는 이 간본의 국역 연구와 함께 해체를 붙인 국역본을 간행하였고,<sup>51)</sup> 관련 연구자들의 간략한 연구도 있다.<sup>52)</sup>

42) 『中宗實錄』 105卷, 39年 10月 27日, “壬辰 上不豫…藥房提調啓曰: “自上命勿問安, 而未安, 故敢問安. 臣等多見疴證, 雖證勢暫差, 而下道少通, 此後當益加調治. 臣等全不知醫術, 兵曹參議安珪精於醫術, 聞見博而所驗異於常醫. 請於藥房常仕同議. 傳曰: 知道.”

43) 『明宗實錄』 24卷, 13年 10月 24日, “以安珪爲議政府右議政.”

『明宗實錄』 25卷, 14年 2月 4日, “左議政安珪, 以疾辭職, 不允.”

44) 安瑋, 救急良方跋, “不敢私秘, 並附于治腫之左, 欲與人共之.”

45) 신좌섭, 기창덕, 황상익, “조선시대 치중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중전문서의 내용분석(2),” 『醫史學』, 제7권 제1호(1998), 76.

46) 권수제, 판심제, 권미제 모두 「구급양방」이다.

47) 徐有矩, 『攷事撮要』(1585년 간행 목판본 및 일본사본), 全羅道, 錦山(『한국의 책판목록:상』, (서울: 보경, 1995), 98, 143), “冊板…治腫秘方.”

48) 『한국고서종합목록』, (서울: 국회도서관, 1968, 731)에 따르면, 간본 「치중비방」은 京都大學과 內閣文庫에도 소장되어 있다.

49) 國立中央圖書館(M古3-2005-12).

50) 金信根 編, 『韓國韓醫學大系』:38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9), 217-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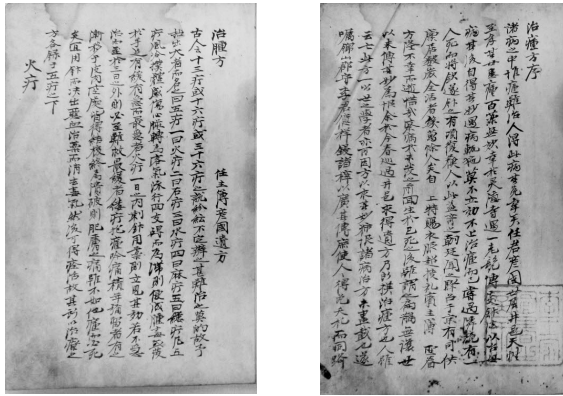
51) 박상영, 이선아, 권오민, 안상우, “치중비방 연구: ‘遺方’의 성격과 의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한의학회지』, 제14권 1호(2008), 1-8.

안상우, 박상영, 『국역치중지남·치중비방』, (대전: 한국한의학회, 2008), 3-31.

이 국역본(23)에서는 「치중비방」에서 임언국 자신을 “臣”이라고 한 사실을 근거로 “애초에

### 3.2 사본 「치중방」

사본 「치중방」<sup>53)</sup>은 「치중방」 외에도 「回春要訣」, 「老人攝養方」, 「小兒方」 등과 합책으로 전하는데<sup>54)</sup> 그 중에서 「치중방」은 7장 분량이다. 18-9세기의 사본으로 추정되며 20세기 초기에 앞뒤표지와 함께 개장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序題面 하단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고, 손때가 심한 점으로 보아 완성 초기부터 기관의 소유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사본 「치중방」의 서제면(우)과 권수제면(좌)

내용을 보면 「치중비방부」의 한문 부분만을 베낀 사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본 「치중방」은 다음에 소개하는 「宜彙」 수록 「치중방」과 함께 「안위가 퍼낸 「치중비방」 내용 뒷부분에 「침구경험방」에 나오는 허임의 의론을 결합한 서적<sup>55)</sup> 또는 “임언국의 「치중비방」과 허임의 「침구경험방」 및 다른 서적들을 참고

임금을 주독자로 상정하여 집필된 책이었다.”거나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을 상부에 보고한 일종의 보고서”로 보았다.

52) 김호, “임언국, 조선 외과 수술의 선구자,” 『조선의 명의들』 (과주: 살림, 2007), 14-23.

5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청구기호 K3-0380. 1책(51장) ; 22.4×16.5cm.

54) 이규근이 처음으로 이 사본을 소개하였다. “조선중기 治腫術의 발달: 治腫方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6집(2001), 158.

하여 임상에 응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정리하여 치종 제반에 응용”<sup>56)</sup>하기 위해 편집된 의서로 평가되었다.

권수제 하단의 저자사항 “任主簿彥國遺方”은 「치종비방부」의 “禮賓主簿任彥國遺方”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치종비방」에는 이러한 저자사항이 없으므로 두 본간의 계통성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서문의 말미에는 “嘉靖三十八年己未正月全羅道觀察使安瑋序”라고 되어 있다. 「치종비방」이나 「치종비방부」의 해당 부분<sup>57)</sup>과 대비하면 품계와 직책 중 일부가 생략되어 있다.

### 3.3 「의휘」 수록 「치종방」

「의휘」는 본편 4권과 속편·습유 등 모두 5권으로 된 필사본이다.<sup>58)</sup> 錦里散人이 편집하였는데 의사의 진단과 치료 없이도 민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sup>59)</sup> 서문 끝의 “辛未季春下澣”과 같이 1871년(고종 8) 3월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치종방」<sup>60)</sup>은 「痘瘡」, 「紅疹」, 「桃源秘訣」, 「老人攝養方」, 「救急」, 「相忌物」, 「雜方」 등과 함께 권4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이 역시 「치종비방부」의 한문 부분만을 배기한 사본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권두에 있는 서제는 “附治瘡方”이다.<sup>61)</sup> 이렇게 “부”를 서제로 사용하고

55) 서지연, “임언국의 치종의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8), 41.

56) 서지연, 김남일, “任彥國의 의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 『한국사학회지』 제20권 2호(2007), 37.

57) “嘉靖三十八年己未正月下澣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安瑋序.”

58) 金信根 編, 『韓國韓醫學大系』 32 (서울: 韓國人文科學院, 1999).

59) 오준호, 박상영, 차웅석, “19세기 의방서 宜彙의 구성과 내용,”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16권 1호(2010), 12.

60) 서지연은 이 치종방의 서명에 대해 “『宜彙』에 수록되어 있는 『任主簿彥國遺方』”(22, 41) 또는 “이 책 안에 『任主簿彥國遺方』이 있는데”(40)와 같이 서명을 『任主簿彥國遺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명으로 소개한 『任主簿彥國遺方』은 저자사항이고, 저자사항 윗부분에 짚은 글씨의 권수제인 『治腫方』이 있다. 오준호 등도 “19세기 의방서 宜彙의 구성과 내용”(『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16권 1호(2010), 15)에서 “치방의 이름은 任主簿彥國方이다.”며 서지연의 글을 따르고 있다.

61) 서지연은 “임언국의 치종의학 연구”(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8, 37)에서 “둘

있다는 것은 저본이 『치중비방부』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셈이다. 그런데 앞의 사본 『치중방』과 동일하게 염탕목욕법의 “塵剝”와 “摩擦”에 한글로 된 세주가 있다. 이 책에는 각각 “가로가치 뼈흐단 말”, “부비여 만져”로 되어 있고, 사본 『치중방』에서는 각각 “가로가치 뼈흐단 말”, “부비여 만져”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한글표기로 보아 이 책은 사본 『치중방』보다 늦게 필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본 모두 이 곳에만 한글세주가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한 계통의 전사본임을 보여준다. 곧 이 책은 사본 『치중방』을 대본으로 전사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한의학계의 선행연구에서 이 책을 대본으로 한 번역연구가 있다.<sup>62)</sup> 이 연구에서 “『치중비방』은 (『의휘』 수록) 『치중방』의 원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임언국의 유방이 따로 필사되어”<sup>63)</sup> 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더욱이 대본으로 삼은 이 책의 서제인 “附治瘡方”을 마치 『의휘』의 부록으로 『치중방』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록-치중방”과 같이 국역까지 하였다.<sup>64)</sup> 이러한 추론과 국역의 원인은 당시까지 『치중비방부』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 4. 전본의 대비

### 4.1 항목의 배열

『치중비방부』와 유사한 전본은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치중비방』, 사본 『치

---

다 ‘腫’을 ‘瘡’으로 표기하고”라고 하였는데 『의휘』 수록 『치중방』의 서제인 “附治瘡方”를 참고한 것 같다. 그러나 권수제는 『治瘡方』이다.

62) 박상영 외, “임언국의 치중방 번역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2권 4호(2009), 117-128.

안상우, 박상영, 『국역의휘Ⅳ』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68-180.

63) 박상영 외, “임언국의 치중방 번역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2권 4호(2009), 128.

64) 박상영 외, “임언국의 치중방 번역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2권 4호(2009), 118.

이 글에서는 권수제인 『治瘡方』을 취하지 않고, 서제인 “附治瘡方” 중에서 『治瘡方』을 택하여 서명으로 소개하였다.

중방, 「의회」 수록 「치중방」 등 3종이 알려져 있다. 먼저 4종의 유사전본에 수록된 항목과 배열 순서를 대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유사전본 항목의 배열(65)

구분	치중비방	치중비방부	사본 치중방	의회 수록 치중방
1	火丁	火疔	좌동	좌동
2	鹽湯浸引法	石疔	좌동	좌동
3	土卵	水疔	좌동	좌동
4	千金漏蘆湯	麻疔	좌동	좌동
5	蟾灰	縷疔	좌동	좌동
6	鹽湯沐浴法	鹽湯浸引法	좌동	좌동
7	石丁	土卵膏	좌동	좌동
8	水丁	千金漏蘆湯	좌동	좌동
9	麻丁	蟾灰	좌동	좌동
10	縷丁	鹽湯沐浴法	좌동	좌동
11	背腫	背腫	좌동	좌동
12	×	疔腫	좌동	좌동
13	×	治腫奇捷	좌동	좌동
14	×	騎竹馬穴法	좌동	좌동
15	×	諸危惡症	좌동	좌동

<표 1>에서 보듯이 「치중비방」과 「치중비방부」는 항목의 숫자와 배열순서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문에서는 火疔, 石疔, 水疔, 麻疔, 縷疔 등 5항목을 소개하였으나<sup>66)</sup> 본문에서는 背腫 1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법 5항목은 화정 아래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치중비방부」는 이보다 4항목이 많은 15항목이 있다. 더욱이 항목의 숫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배열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곧 「치중비방」에서는 화정 다음에 5항목의 치료법을 소개한 뒤에 석정,

65) 疔腫은 「구급양방」(1559)과 「침구경험방」(1644) 등에서, 治腫奇捷, 騎竹馬穴法, 諸危惡症 등은 「침구경험방」의 瘡腫 등에서 증보한 것이다.

66) [治腫秘方原序], 古人云…臣拈出大者而名之曰五疔一曰火丁二曰石丁三曰水丁四曰麻丁五曰縷丁.

수정, 마정, 누정 등을 차례로 배열하였다. 이에 비해 『치중비방부』에서는 5항목의 중기유형이 끝난 뒤에 5항목의 치료법을 배열하고 있다.

『치중비방』에서 화정 아래에 5항목의 치료법을 배열한 이유는 화정에서 화정의 치료법인 염탕침인법, 토란, 천금누로탕, 심회, 염탕목욕법 등을 소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5정에 앞서 이들을 설명하는 글에서 “치료법은 각각 5정의 아래에 기록한다.”<sup>67)</sup>고 하였고, 또 화정의 말미에서 “침과 약의 치료법은 왼쪽(다음)과 같다.”<sup>68)</sup>고 하여 이들을 화정에 배열할 것을 미리 밝히고 있다. 그러나 『치중비방부』에서는 중기의 유형 5항목이 모두 끝난 다음에 5항목의 치료법을 배열해 놓았다. 편성체제에만 본다면 이러한 배열방식이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한다.<sup>69)</sup> 그러나 5항목의 치료법의 위치만 옮겼을 뿐이어서 문맥상으로는 깔끔하지 못하다. 곧 5항목의 치료법을 누정의 아래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화정에서 필요가 없게 된 “침과 약의 치료법은 왼쪽(다음)과 같다.”는 글을 화정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그 사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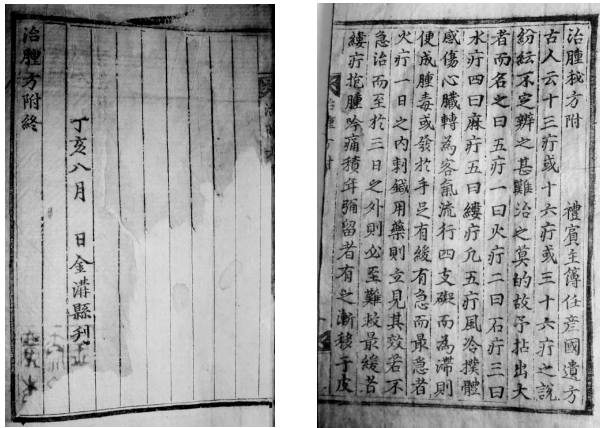
## 4.2 서명과 문자의 異同

안위는 『치중비방』을 간행할 당시부터 『치중방』이라고도 하였다. 그것은 『치중비방』과 함께 간행된 『구급양방』의 발문에서 “『치중방』에 덧붙여 간행한다.”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대에도 『치중비방』은 『치중방』이라는 약서명으로 통용되었을 것이다. 『치중비방부』의 서제는 “치중방”이지만 관심제와 권미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治腫方附”이다. 곧 『치중비방』 대신 『치중방』이라는 약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2종의 사본도 『치중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치중방』은 『치중비방』을 간행하던 당시부터 줄곧 사용되던 『치중비방』의 약서명이었다.

67) [治腫秘方原序], “…治療之方, 各錄于五丁之下.”

68) 『治腫秘方』, “火丁…針藥之法, 如左.”

69) 내용을 보면, 5항목의 치료법은 纏疔을 제외한 火疔, 石疔, 水疔, 麻疔 등 모두에 해당되는 치료법이다.



<그림 2> 「치중비방부」의 권수제면(우)과 권미제면(좌)

그러나 서명의 채택에는 권수제를 우선순위로 하는 규칙이 있고,<sup>70)</sup> 그래야만 유사한 전본들의 구분이 용이하다. 「치중비방」은 <표 2>에서 보듯이 권수제를 포함하여 서제, 판심제도 「치중비방」이다. 서명은 당연히 「치중비방」이다. 「치중비방부」의 서명은 권수제인 「치중비방부」이지만 「치중방부」라고 약칭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서명의 “부”는 의도적으로 첨가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 간행한 주역들의 의도에 합치되고 사본 「치중방」과도 구분되는 것이다.<sup>71)</sup> 사본 「치중방」과 「의회」 수록 「치중방」의 서제는 각각 “治腫方”, “附治腫方”이나 실은 「치중비방부」의 전사본들이다.<sup>72)</sup> 이 사본들의 권수제는 모두 「治腫方」이며, 부가적으로 구분할 만한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70) 『한국목록규칙』 제4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159-160.

제4장 고서와 고문서, 4.0.3.1(정보원의 우선순위), 4.0.3.2(기술사항별 정보원).

71) 한국학자료센터(<http://region.kostma.net>)의 해제에서 이 판본을 「治腫方」, 상세정보에서 “표제: 치중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는 표제는 없고, 다만 1960-70년대에 보수하면서 붙인 제첩에 「治腫方」이라고 쓰여져 있다.

72) 박상영 외, “버클리대 아사미문고본 治腫方に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제23권 2호 (2010), 39.

이 논문에서 소개된 <필사본 治腫方 권수(장서각 소장)> 사진은 장서각 소장의 「치중방」이 아니라 「의회」 수록의 「치중방」이다. 이렇게 두 종의 사본마저도 혼동의 대상이 된다.

이 「치종방」들은 “사본”과 “『의휘』 수록”을 서명 앞에다 붙여 서로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치종비방」, 「치종비방부」, 사본 「치종방」, 『의휘』 수록 「치종방」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혼란을 피할 필요가 있다. 유사 전본 4종에 보이는 서명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유사 전본 4종의 서명

구분	치종비방	치종비방부	사본 치종방	의휘 수록 치종방
서제	治腫秘方	治腫方	治腫方	附治腫方
권수제	治腫秘方	治腫秘方附	治腫方	治腫方
판심제	治腫秘方	治腫方附	×	×
발문	治腫方	×	×	×
권미제	×	治腫方附	×	×

한편 이 두 간본은 각 항목의 설명 등 여러 곳에서 문자의 異同이 있는데 대비하면 <표 3>과 같다. 사본 두 종은 항목의 배열뿐 아니라 내용 역시 「치종비방부」와 동일하다.<sup>73)</sup> 그러므로 이 사본들은 「치종비방부」의 한문 부분만을 필사한 전사본 또는 그 계통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치종비방부」가 공개되었으므로 사본 「치종방」의 가치는 「치종비방」에다 다른 의서를 보충하여 편집한 후대의 의서가 아니라 드물게 전하는 「치종비방부」의 전사본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73) 사본 「치종방」과 『의휘』 수록 「치종방」은 「치종비방부」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특히 『의휘』 수록 「치종방」의 치종기침에는 癰疽, 癰疽疔初出, 凡腫有瘡, 髮際昏腫, 癰疽毒腫初, 背腫 등의 작은 항목이 있으나 이는 내용을 참고하여 만든 제목일 뿐이다. 그 외에는 몇 자가 다르기는 하여도 동의자이거나 의미가 통용되는 수준이다. 그 중에서 기죽마혈법은 동일하다. 제위약증은 사본 치종방은 「치종비방부」와 동일하나 『의휘』 수록 「치종방」은 “病人氣, 實則易治, 虛則難治”가 “病人氣實, 實則易治, 虛則難治”로 되어 있는데 “實”은 거듭 쓴 착오로 보이고, “一逆” 등은 “一逆也” 등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도 좋다.

<표 3> 「치종비방」과 「치종비방부」의 문자異同<sup>74)</sup>

구분	장차행수	치종비방	치종비방부	구분	장차행수	치종비방	치종비방부
1	1우3(서)	其免者幸矣	其免幸矣	27	3우7	永痊	永差
2	1우8(서)	遂針之	遂鍼之	28	3우9	千金漏蘆湯	千金漏蘆湯 治腫之神藥也(小字)
3	1좌3(서)	禮賓寺主簿	禮賓主簿	29	3좌2	白芨以上各四日(小字)	白芨以上各四分(小字)
4	1우1 <sup>75)</sup>	丁	疔	30	3좌3	黃蓮	黃連
5	1우2	臣(小字)	予	31	2좌4	荊芥以上各五日(小字)	荊芥以上各五分(小字)
6	1우6	心臍	心臟	32	3좌7	火焰中	火中
7	1우8	刺針	刺鍼	33	4우2	淨洗一斗水	淨洗塩一斗水
8	1좌1	抱腫	把腫	34	4우4	麤剉(小字)	麤剉
9	1좌4	用針	用鍼	35	4우7	湯水注頭	湯水于注頭
10	1좌9	尺澤針	尺澤鍼	36	4우8	坐傍以前	坐傍人又以前
11	2우2-3	直上髮際百會尺澤	百會尺澤	37	4우9	及四體	注四體
12	2우4	土卵膏	土卵	38	4좌2	必四五浴	則必四五浴
13	2우6	氣流柱	氣流注	39	4좌3	用蛇莓冷水	用塩湯蛇莓冷水
14	2우8	鹽湯沐浴	鹽湯沐浴神效	40	4좌5	太豆	大豆
15	2좌4	用大錚盤	用大所羅或大錚盤	41	5우1	純赤	純紅
16	2좌4	廣一尺深一寸木器最善(小字)	畝音	42	5우2	四體	四支
17	2좌5	于其中	於其中	43	5좌1	如股脚脚	如股脚脚
18	2좌6	而仰臥	仰臥	44	6우2	臣(小字)	予
19	2좌6	則傍人	令傍人	45	6우4	臣(小字)	予
20	2좌6	于腫上	腫上	46	6좌6	背腫	背腫 凡痛…(小字 및 本文字) <sup>76)</sup>
21	2좌7	使遮	以遮	47	6좌8	鹽湯 水二鉢鹽一合 一盆則一升(小字)	鹽湯
22	3우2	土卵	土卵膏	48	7우6	成濃時	成腫時
23	3우3	其土芋者是也	其土芋者	49	7좌3	僅有一二焉	董有一二焉
24	3우4	以其嚴故	嚴故	50	7좌4	鬱熱	煩熱
25	3우5-6	氣而不使遠去以其寒故能消其熱候	能消其熱	51	7좌7	一心受毒	一心許受毒
26	3우6	臣(小字)	予	52	7좌8	雖有針藥之具	雖針藥之具

74) 「治腫秘方」의 장차와 행수.

75) 이하 丁은 疔.

### 4.3 증보된 4항목

「치중비방」보다 증보된 疔腫, 治腫奇捷, 騎竹馬穴法, 諸危惡症 등 4항목은 「구급양방」 중의 丁腫과 「침구경험방」의 瘡腫 등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치중비방부」의 정종의 주석<sup>77)</sup>과 「침구경험방」의 해당 부분을 대비하면 「치중비방부」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침구경험방」에서는 정종에 대해 生面上口角, 生手上, 生背上 등 세 유형으로 나누고, 그 치료법을 간략하게 주석으로 달아 놓았다.<sup>78)</sup> 그러나 「치중비방부」에는 생배상은 없고 생면상, 생수상도 쌍행의 주석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전자는 소자, 후자는 본문자이다. 더욱이 생면상 및 구각에서는 「침구경험방」에도 없는 “침을 뜨면 좋다.”<sup>79)</sup>는 내용도 있다.

치중기침은 「침구경험방」 瘡腫의 첫 부분을 옮겨 별도의 항목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항목의 첫 내용은 「침구경험방」과는 달리 본문을 주석으로 하거나 결락된 문자도 적지 않다. 아마 여러 곳에서 뽑아서 간추린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데 「침구경험방」에 별도의 항목으로 된 기죽마혈법과 제위약증도 「침구경험방」과는 문자의 차이가 더러 있다. 곧 두 곳에서만 문자의 차이가 보이는 제위약증과는 달리 기죽마혈법은 여러 곳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또 「치중비방부」의 마지막에 수록된 2행<sup>80)</sup>은 「침구경험방」의 五逆症察色에 수록된 것<sup>81)</sup>인데 이 역시 문자의 차이와 결락이 보인다.

그러므로 증보된 4항목 중에서 정종은 「구급양방」과 「침구경험방」의 해당부분에서 인용하였고, 치중기침 등 3항목은 치중기침 아래에서 밝힌 대로 「침구경

76) 凡痛痒瘡瘍, 皆屬心火, 故灸騎竹馬穴, 則心脉流通, 自至安愈矣. 三月前可灸也.(小字) 凡腫脉, 宜滑數, 緊急(本文字) 最危者, 蝦遊脉雀喙脉也.(小字)

77) 「治腫秘方附」, 疔腫, “疔腫生面上及口角針合谷下三里神門灸亦良. 生手上曲池穴三七壯.”

78) 「鍼灸經驗方」, “疔腫生面上口角合谷下三里神門. 生手上曲池穴三七壯. 生背上肩井七壯委中靈道…”

79) 「治腫秘方附」, 疔腫, “…灸亦良.”

80) 「治腫秘方附」, “目白睛黑眼胞約小一逆. 納藥嘔吐二逆. 腹痛渴甚三逆. 肩項不便四逆. 聲嘶色脫痢疾五逆.”

81) 「鍼灸經驗方」五逆症察色, “察眼目白睛黑眼胞約小一逆. 納藥嘔吐二逆. 腹痛渴甚三逆. 肩項不便四逆. 聲嘶色脫或痢疾五逆. 無此五逆者順也.”

협방」에서 인용한 내용임이 확인된다. 다만 4항목에서 인용한 내용이 불완전하고 문자의 차이도 있는데 이는 간본이 아닌 사본 「침구경험방」을 보고 인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중을 제외한 「치중비방부」의 3항목의 아래에 있는 주석부분을 「침구경험방」과 대비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치중비방부」에 부가된 3항목 아래의 주석은 「침구경험방」과 거의 동일하거나 간략하게 인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치중비방부」에서 증보한 3항목의 주석과 「침구경험방」의 대비

구분	치중비방부	침구경험방
치중기첩	癰者陽, 滯於陰爲腫, 有瘡皮肉光澤者, 是易治. 疽者陰, 滯於陽爲腫, 無瘡皮膚不澤, 內暈廣大, 欲知疽口, 以濕紙付貼, 先乾處, 是疽口也.	癰者陽, 滯於陰爲腫, 有瘡高起皮肉光澤者是. 疽者陰, 滯於陽爲腫, 無瘡內暈廣大, 皮膚起紋不澤者是. 欲知疽口, 以濕紙付貼, 腫上先乾處, 是疽口也
기죽마혈법	以直柎, 先量患人尺澤穴, 至中指端, 折斷, 令患人解衣露體, 騎坐直竹, 然後將其先量柎, 從脊立於坐竹之上, 柎端盡處脊上, 以墨點起, 更用禾稈, 量病人男左女右, 中指中節爲一寸, 又加一寸, 合作二寸, 中摺墨記, 着於先點脊上橫布, 兩端盡處, 是灸穴, 各灸左右七壯止, 不可多灸. 以此法灸之, 則無不愈. 蓋此二穴, 心脉所過處.	以直柎, 先量患人尺澤穴, 橫紋比起循肉, 至中指端, 截斷, 令患人解衣袒露體, 騎坐於直竹之上(瘦人用細竹肥人用大竹), 當尾窮骨可堪接坐. 然後將其先量柎, 從脊竪立於坐竹之上, 柎端盡處脊上, 墨記(此則非灸穴也), 更用禾稈, 量病人男左女右, 中指中節兩紋爲一寸, 又加一寸, 合爲二寸, 將其二寸, 中摺墨記, 着於先點脊上橫布程, 兩端盡處(是灸穴也). 各灸七壯止, 不可多灸, 以此法灸之, 則無不愈者, 蓋此二穴, 心脉所過. 凡癰疽之疾, 皆由於心氣留滯, 故生此毒灸此, 則心脉流通, 即時安愈, 可以起死回生矣.
제위약증	目直視, 摸衣, 撮空, 魚○○○○○ [口氣喘, 命難]全, 病人氣, 實則易治, ○○○○○ [虛則難治. 凡]腫不熱不痛, 不高, 低陷破爛, 肉色○ [紫]黑, 爲內發毒, 肉先死, 必死之疾也.	目直視, 摸衣, 魚口氣喘, 命難全, 病人氣, 實則易治, 虛則難治. 凡腫不熱不痛, 不高, 低陷破爛, 肉色紫黑, 爲內發, 肉先死, 必死之疾也.

## 5. 결 언

16세기 중기까지 활동한 치종 전문의인 임언국은 「치종비방」이라는 저술을 남겼다. 이 저술은 전라도관찰사이던 안위에 의해 1559년에 간행되었다. 이후 「치종비방」보다 광범위한 내용의 「침구경험방」이 1644년에 간행되자 「치종비방」은 더 이상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707년에 「치종비방」에다 「침구경험방」 등에서 선별한 4항목을 보태고 한글을 병기하여 전라도 금구현에서 간행한 것이 「치종비방부」이다. 이 판본은 미국의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 중인데 현재까지 공개된 것으로는 유일하다. 현재 국내에는 「치종방」과 「의휘」 수록 「치종방」 등 두 종류의 유사 전본이 있다. 이 사본들이 수록하고 있는 항목과 내용을 보면 이들은 「치종비방부」의 전사본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종비방부」는 정해년에 전라도 금구에서 간행되었으나 정해년이 언제 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1759년 2월에 완성된 「완영책판목록」의 금구 지역을 보면, 당시 「치종비방부」 목판이 있었다. 그러므로 「치종비방부」는 1644년 「침구경험방」이 간행된 이후 「완영책판목록」이 완성된 1759년 이전에 간행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해”는 1647년과 1707년이 해당된다. 그런데 「치종비방부」와 1653년경에 간행된 「백운신방」의 한글을 대비하면, 「치종비방부」가 후대 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정해년은 1707년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치종비방부」는 「치종비방」에 비해 4항목이 증보되고 한글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명의 “부”는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증보된 4항목 중에서 정종은 「구급양방」과 「침구경험방」, 치종기첩 등 3항목은 「침구경험방」에서 인용하였다. 간행 의도는 백성들에게 보다 증보된 치종술을 알기 쉽게 보급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치종방」이라는 서명은 1559년에 「치종비방」을 간행할 때부터 사용되었고, 18세기의 책판목록과 1871년 「의휘」를 완성할 때까지 줄곧 사용된 보편적인 약서명이다. 그러나 서명의 채택에는 권수제를 우선순위로 하는 규칙이 있다.

그러므로 「치중비방부」는 권수제를 따라 「치중비방부」를 서명으로 삼아야 한다. 혹 판심제와 권미제인 「치중방부」로 약칭할 수는 있겠다.

넷째, 국내외 유사전본으로는 「치중비방」 외에 사본 2종이 있다. 사본 2종은 항목의 배열과 내용이 「치중비방부」와 거의 동일하고, 둘 다 염탕목욕법의 “塵剝”과 “摩擦”에 한글 주석이 있다. 그러므로 두 사본은 「치중비방부」의 동일한 계통의 전사본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고어로 된 한글 주석을 보면 「의회」 수록 「치중방」이 사본 「치중방」보다 후대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회」 수록 「치중방」은 사본 「치중방」을 다시 전사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 사본들의 실체가 밝혀졌으므로 두 종류의 사본은 드물게 전하는 「치중비방부」의 전사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원전 및 자료]

임언국. 「치중비방부」(UC Berkeley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

임언국. 「치중비방」.

허임. 「침구경험방」.

정사룡. 「호음잡고」 권8.

어숙권. 「패관잡기」 권5(「한고관외사」권5 수록).

안경창. 「벽은신방」.

「명종실록」.

「중종실록」.

「조선고전해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5.

「한국고서종합목록」. 서울: 국회도서관, 1968.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사지총람:하」. 대전: 문화재청, 2010.

- 『한국의 책판목록:상하』. 서울: 보경, 1995.
- 『한국한의학대계』:32, 38. 김신근 편.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9.
- 『버클리대학 도서관』(<http://oskicat.berkeley.edu>).
- 『인터넷아카이브사』(<http://www.archive.org/details/starr>).
- 『에브리빙』(<http://www.everybeing.net>).
-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한국학자료센터』(<http://www.kostma.net>).
- 『한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

#### [단행본 및 논문]

-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유의열전』. 서울: 들녘, 2011.
-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98.
- 김호. 『조선의 명의들』. 파주: 살림, 2007.
- 안상우.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 증보판.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 안상우, 박상영. 『국역의휘IV』.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 안상우, 박상영. 『국역치종지남·치종비방』.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 오용섭. 『돌려받지 못한 책들』. 서울: 경인, 2008.
- 미키 사카에(三木 榮). 『補訂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 思文閣出版, 1991.
- 서지연. “임언국의 치종의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8.
- 서지연, 김남일. “任彦國의 의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권 2호 (2007). 34-41.
- 박상영, 이선아, 권오민, 안상우. “치종비방 연구: ‘遺方’의 성격과 의사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14권 1호(2008). 1-8.
- 박상영 외. “버클리대 아사미문고본 治腫方に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제23권

2호(2010). 37-41.

박상영 외. “임언국의 치종방 번역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2권 4호(2009). 117-128.

신좌섭, 기창덕, 황상익.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2).” 『醫史學』 제7권 제1호(1998). 205-211.

오준호, 박상영, 차웅석. “19세기 의방서 宜彙의 구성과 내용.”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16권 1호(2010). 11-17.

이규근. “조선중기 治腫術의 발달: 治腫方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6집(2001). 155-178.

